

대학과 그 기능

화이트헤드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가의 지적수준에 대해서 큰 결함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국가의 치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상식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새로이 세워지는 모든 대학건축이 그러한 현상을 추종하기에 급급해있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화이트·헤드 교수의 이 글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과연 했어야하고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큰 암시를 줄 것이다. 그의 글에는 우리가 수 없이 대해은 언어의 환각이 없다. 그는 이 글에서 오늘날 우리 주위의 그 수 많은 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과 의무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대학의 확대는 현대에 있어서 사회의 한 현저한 특징이다. 모든 국가는 다 같이 이와같은 경향에 놓여있다. 그리고 그 수, 그 크기, 그 내부조직의 복잡성에 있어서 대학의 이와같은 확대는 대학자체의 중대한 기능의 상실을 가져왔고 드디어는 대학의 효용의 원천 그 자체마저 파괴하게된 위험을 노증하고 있다. 대학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관한 재검토의 필요는 모든 비교적 진보한 나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대학의 발전은 제대로 인도만 된다면 종래의 문명이 경험한 가장 탁월한 진진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대학은 교육의 院이며 연구의 院이다. 그러나 그 존재의 근본적 이유는 단순히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여 주는 것도 아니며 또한 단순히 교수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와같은 기능은 막대한 비용을 요하는 기관을 두지않고서도 보다 싼 비용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 서적은 싸며 년계봉공의 제도도 잘 이해되어있다. 단순한 지식의 공급이라는 일이라면 15세기에 있어서의 인쇄의 보급이래로 어느 대학도 그 존재를 정당화시킬 이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학창설의 주된 요인은 이 시기 이후의 일이며 그리고 보다 최근에 이르러서 더욱 증가되어왔다.

대학을 정당화하는 것은 학문의 상상적인 연찬속에서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과를 결합시킴으로서 지식과 생활의 여운과의 연결을 보존하여 간다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지식을 전달한다. 그러나 지식을 상상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적어도 이것은 대학이 사회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능이다. 이 점에 결함을 갖는 대학은 존재할 이유를 갖지 못한다. 상상적인 연찬으로부터 나오는 정서적인 환경은 지식을 다른 차원으로 인도한다. 거기에서 하나의 사실은 이미 한개의 사실은 아니며 그것은 모든 그의 가능성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기억에의 부담이 아니며 그것은 꿈의 시인과 같이 활기에 충만되어 있으며 목적을 향하는 생기에 넘쳐 있는 것이다.

상상력은 사실과 분리되어서는 않되며 그것은 사실을 비추어야 한다. 그것은 사실에 적용되는 일반적원칙을 있는 그대로 끌어냄으로써 그들의 제원칙과 일치하는 다른 가능성의 지적 탐구에 의해서 작용한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새로운 세계의 지적영상을 만드는 것을 가능케하며 만족한 목적을 암시함으로써 생활의 여운을 보존하게한다.

세상의 비극은 상상력이 풍부한 자에게는 경험이 적은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는 상상력이 없는 일이다. 우둔한 자는 지식없이 상상한다. 현학적인 사람들은 상상력없이 지식을 사용한다. 대학의 사명은 상상과 경험과를 융합하는 일이다.

상상력의 그 가장 젊음에 넘친 활발한 시기에 있어서의 도야는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각종의 이상적인 예증이 일반적 제원칙으로부터 직접 본원적으로 식별되는 선입관념없는 사고의 습관은 구체적인 조직을 보존하는 일상적 임무를 수반할 때에는 이를 수가 없다. 학생은 옳든 그르든 간에 자유로이 사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주의 복잡한 모습을 우주의 위기등에 의해서 혼란됨이 없이 자유로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교육의 일반적기능에 대한 이러한 반성은 직접 이것을 실제적인 분과의 특수한 기능에 옮겨서 생각할 수가 있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조직 속에서는 인생의 모형은 지성적모형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대학은 우리가 가진 문화의 지적 선도자들을 교육하여왔다. 그 의미에 있어서 대학은 사람들을 그 시대의 혼란에 직면시키려고 하는 이상의 발상지였다. 오늘날의 상업적 행위는 과거에는 다른 방면의 일에 주로 바쳐진 것과 같은 종류의 지적인 상상력을 요구하고있다.

중세의 초기에 있어서의 대학의 발생은 애매하였으며 따라서 거의 주의를 끌지 못하였다. 대학은 점진적이고 자연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학의 존재는 구라파문화의 불굴하고도 급속한 진보의 이유다.

모든 보다 높은 종류의 인간적 노력을 방해하는 한 큰 난관이 있다. 현대에 있어서 이 장애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모든 커다란 조직내에서 미숙자로서의 젊은이들은 명하는 바에 따라서 정해진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작업은 하나의 큰 훈련이다. 그것은 지식을 주고 신뢰에 해당하는 인격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행에 의해서 일상적인 일의 지속은 상상력을 둔화시킨다. 이런 결과는 한 사람의 생애의 후반에 있어서의 중요한 소질이 그 초기단계에서 한 형에 고정될 경향을 강하게 한다. 이것은 보다 일반적인 사실 즉 필요한 기술적 탁월성은 그와같은 기술적 수완을 인도할 지적능력을 상하게하기 쉬운 한가지 훈련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의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에 있어서의 관전적 사실이며 교육의 대부분의 곤란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대학이 어떠한 지적인 직업의 준비로서 수행할 기능의 자태는 그 직업이 현대의 실업적인 것인지는 혹은 비교적 재래형의 직업이든 간에 그 직업의 기저에 놓여있는 일반 제원칙의 상상적인 고찰력을 높이는데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학생들은 세목과 일반원칙과를 결합시키는 연습을 거쳐서 상상력을 몸에 지니고 각자의 전문적인 하나의 전습시대에 들어간다. 일상적인 일은 이러한 의의를 받고 또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제원칙에 빛을 준다.

대학 본래의 기능은 지식의 상상적인 획득이다. 대학은 상상적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상상력은 전염병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계량되지 않는다. 그것은 교수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진다.

이 상상력은 그들 자신이 상상력을 가진 학식을 몸에 지니고 있는 교수들에 의해서만 전염될 수 있다. 나는 별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관찰의 하나를 반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기원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 세대의 손으로부터 다음 세대의 손으로 계승되는 등화에 의해서 학문을 표징하였다. 이와같은 불붙은 등화야말로 내가 말하는 상상력이다. 즉 창조하는 힘이다.

상상력과 학문과의 결합에는 약간의 여가, 구속되지 않은 자유, 피로운 고민으로부터의 해방, 약간의 경험, 그리고 서로 다른 견해와 준비가 있는 다른 정신으로부터 받는 고무가 당연한 현상으로서 필요하다.

또한 호기심으로부터 오는 흥분도 필요하며 지식의 진보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긍지로부터 생기는 자신도 필요하다. 학식과 상상력과를 가진 생활은 한 생활양식이니 상품이 아니다.

교육과 연구가 한 대학에서 결합되어 간다는 것은 한 효율적인 교수진에게 이와같은 조건이 겸비되고 그것이 유효하게 이용되어가는 일이다. 대학은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참가하는 탐험의 집이다. 한 진보적인 사회는 그 속에 학자와 발견자와 발명자의 세가지 집단을 포함하는데 의존한다. 그리고 사회의 진보는 그가 갖는 교육받은 대중이 자기 학구적분위기·발견적풍조·발명적색채를 갖는 멤버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발견이라고하는 말은 고도로 보편성이 있는 진리에 관한 지식의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명이라는 말은 현재의 요청에 이룰 수 있는 특수한 방법에 있어서 보편적 진리를 응용하는 것에 관한 지식의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국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갖는 모든 종류의 진보적 요소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비로소 연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이 학문에 영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여러가지 진보적 활동을 하나의 유효한 진보의 기구속에 융화시키는 주요한 작용을 하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